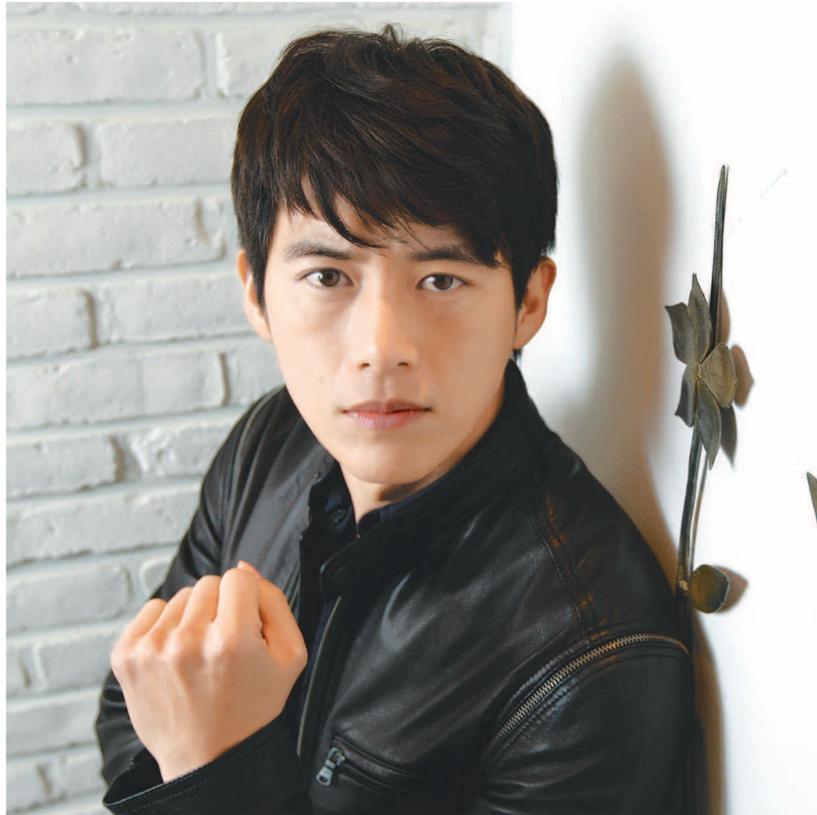


스타플라자



19禁 몸 연기 그는 러브신의 고수

(금할 금)

영화 '백야행'으로 4년만에 돌아온 고수

고수는 마치 성인식을 치르듯 영화 '백야행'을 통해 반듯한 이미지의 '청춘스타' 이미지와 작별을 고했다.

허민영 기자 justin@donga.com

4년. 그 사이 그는 예비역이 됐고, 석사 배우 대열에 들어섰다. 그리고 나이 역시 어느덧 30대가 됐다. 고수는 1000일을 훌쩍 넘는 오랜 시간이 이렇듯 단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단 게 "당혹스럽다"고 했다. 배우인 그에게는 출연작이란 약력 또한 자신의 연대기에 추가된다. 4년여의 공백기를 거쳐 복귀작으로 내놓은 것은 영화 '백야행'(감독 박신우). 활동 재개란 의미 외에 이 영화는 과거의 고수와 현재의 고수를 구분 짓는 전환점으로 관객들에게 기억될 듯 하다.

애정신이나 이에 수반되는 신체 노출 등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수의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반듯한 이미지의 청춘스타가 자신의 과거와 작별을 고했다는 '성인식'과도 같았다.

과감한 베드신 '성인식' 같은 것... 느낌? 그저 웃음만 영화선 손예진·드라마선 한예슬과 호흡... 난 행운아

때문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극중 상대역인 손예진의 베드신만큼이나 그의 몸 연기가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수는 그저 쑥스러운 미소만 머금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땐 열정과 감성에 주로 많이 기댔다면, 이번 생각 많이 할 수 있게 됐다고 할까."

세련 혹은 노련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직업관의 변화도 느껴졌다. '백야행'의 요한이란 역할은 이블레엔 달라진 고수의 첫 실형 대상이었다. 영화에서는 공교롭게도 요한의 혈액형이 자주 언급된다. 고수의 실제 혈액형은 A형, 극중 요한은 AB형이다. 그 또한 행신하진

않지만, 혈액형이 지난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듯했다.

"피를 바꾸는 작업과도 같았지요. 배우 고수 속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꺾어내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한 첫 인물이 '백야행'의 요한이요."

스틸러를 가장(?)한 멜로물이란 '백야행'의 독특한 형식을 따라 고수 또한 영화 속에서 상대역 손예진과 남다른 사랑을 한다. 다 거서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괴이한 연인들. 이를 두고 그는 "원거리 연애"였다고 웃으며 말했다.

"신선한 경험이었죠. 멜로 연기를 하며 이렇듯 상대역과 마주쳐 본 적 없기는 처음이었어요. 언제 또 이렇듯 흔치 않은 기회를 맞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난 4년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일까. 고수는 영화 개봉과 함께 12월 안방극장도 찾아간다. SBS의 새 드라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요?'가 그것. 영화에서는 손예진이 터니, 드라마에서는 상대역이 한예슬이다. '여복'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고수는 그저 "행운아"라고만 했다.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배우. 고수는 복귀에 임하는 각오이자 앞으로 자신이 걸어 갈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짜 연기 복귀작은 사실 크게 드러나질 않았을 뿐, 지난 해 대학로에서 상연했던 연극"이었다는 말로 그는 포레의 스타와는 분명히 다른 색깔을 내비쳤다.

소설 쓴 신이 "곰탈녀 얘기 들어보실래요?"

(곰의 탈을 쓴 여우)

장편소설 '곰의 탈을 쓴 여우' 내놔 "내승과 진심 사이 한 여자의 로맨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자리에 앉을 때 다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려고 살짝 뒤통지를 들어본 적이 있나? 비비 크림을 바르고 나와도 '생일'이라고 말할 적이 있나? 얼굴이 평소보다 부은 것 같아 약속을 취소한 적은? 아니면 집에서 먹을 때와 남자 앞에서 먹을 때 밥의 양이 다른가?

혹은 눈웃음을 친다는 말을 들어봤나? 눈길만 주면 남자 하나쯤 넘어오게 할 수 있다고 믿나? 말과 행동으로도 그 사람의 속마음과 '수'를 읽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모두 '에스'라면 당신은 '곰탈녀'임에 틀림없다. '곰탈녀'가 무슨 말이나고? '곰의 탈을 쓴 여우'의 줄임말이다. 이는 배우 신이가 최

근 내놓은 장편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

'곰의 탈을 쓴 여우'(노란 잠수함)는 영화 홍보사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과 여섯 살 연하의 아이돌 그룹 출신 '훈남'이 만나 펼치는 로맨스의 이야기. 실제 경험이나나 짓궂은 질문에 신이는 "내용 가운데 50%는 나와 내 주변 친구들의 경험담이다"고 말했다.

제목에 대해서도 물었다. 신이는 "곰의 탈을 쓴 여우가 돼야 남자를 건질 수 있다"면서 킥거린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우짓을 못한다"면서. "그건 진심이기 때문이다"는 그녀는 "내승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고 못박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녀의 책 '곰의 탈을 쓴 여우'는 내승과 진심의 절반쯤 사이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좌충우돌 하지만 행복한 로맨스라고 할 만하다.

혼자 소설을 써나가면서 혼자 웃고 울었다는 신이는 집필 기간이 짧았던 것도 자신의

배우로서 감수성 덕분이라고 말한다.

"배우여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스토리를 생각하며 각 장면과 인물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상상했고 그래서 묘사가 빨랐다."

평소 로맨스 소설이나 청소년 성장소설을 좋아해 많이 읽고 있다는 신이는 또 종교교 시절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한 글솜씨를 지녔다며 수줍어한다.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받아 읽으며 스스로 장면을 각색하고 대사를 바꿔 쓴 것도 뒤늦게 들여다보니 '습작'이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감성도 팬을 들게 한 배경이 아니었을까. 6개월 전 구상에 들어가 200자 원고지 260매를 약 두 달 동안 매워나간 그녀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해피엔딩이어야 한다"고 믿는 그녀는 "그렇지 않으면 상상하다"며 아직 찾아오지 않은 자신의 사랑과 그 상상의 이야기를 소설에 담았다.



'곰의 탈을 쓴 여우'라는 장편소설을 발간한 배우 신이. 임진환 기자 photolm@donga.com

이 이야기를 배우답게, 시나리오로 옮겨 쓸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좀 더 테일한 묘사가 필요하다"고 계획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미 스릴러 장르의 소설을 하나 써놓기도 했고 앞으로도 짬짬이 글을 쓸 계획이라는 그녀는 새 영화 '세라와 라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정우가 주연한 성장영화 '바람'의 3D 콘티. 사진제공 | 필름 더 데이즈

종이는 가라! '3D 콘티' 뜬다

'백야행' "완벽한 시뮬레이션...비용·시간 확 줄여" 성장영화 '바람' "3D콘티로 28일만에 촬영 끝내"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충무로에 3D 콘티 제작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제작비 및 시간의 절감은 물론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영화 제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콘티란 시나리오를 토대로 인물의 대사와 지문은 물론 카메라 워킹과 배우의 동선, 모든 장면의 구성 등을 그래픽 형식으로 정리한 것. 시나리오처럼 책으로 묶여져 현장에서 활용된다.

3D 콘티는 이를 3D화한 동영상으로 작업해 만든 것. 촬영 전 각 장면은 물론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분위기 등을 3D로 표현,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우와 스태프간의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인 촬영,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 측면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개봉한 영화 '백야행:하얀 어둠 속을 걷다'(이하 '백야행')와 26일 선보이는 '바람'이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제작 방식을 도입, 화제가 되고 있다. 손예진, 고수 주연 '백야행'은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3D 콘티의 사전 애니메이션 작업을 거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콘티를 이용했다. 모든 공간과 세트의 이미지, 배우들의 동선, 성우들의 더빙까지 입힌 영상을 활용한 이 콘티는 '백야행'의 애니메이션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백야행'의 제작사 푼스픽처스의 안은미 대표는 "촬영 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정확하고 세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했다"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많은 제작사들로부터 이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말해 충무로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정우가 주연한 성장영화 '바람' 역시 3D 콘티를 적극 활용했다. 전작 '스페이스'에서 신선한 액션 장면으로 기대를 모은 이성환 감독은 3D 콘티 작업을 거쳐 28일 만에 15회차 촬영으로 영화를 완성시켰다. 특히 "촬영현장의 시간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촬영이 가능했다"고 이 감독은 말했다. 이성환 감독은 3D 콘티를 동영상과 인쇄된 콘티북으로까지 함께 활용해 좀 더 정교한 프로덕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바람'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불량서클에 가입하는 주인공의 성장기를 그린 영화. 따라서 극중 학생들이 대거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아 이 같은 3D 콘티 작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제작사는 밝혔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공연

랭킹 뉴스

• 종합순위

순위	공연
①	Musical 오페라의 유령
②	2009 마당놀이 이춘풍 난봉기
③	뮤지컬 명성황후
④	뮤지컬 영웅
⑤	2009 MBC 마당놀이 토정비결
⑥	NO.1 뮤지컬 그리스(Grease)
⑦	2009 송년발레 호두까기 인형
⑧	국민연극 라이어턴-광주공연
⑨	최정원의 연극 피아프
⑩	조수미의 나와 함께 꿈을

집계기간 : 11월 12일~18일, 자료 : 티켓링크

행복한 아침 편지

마트서 기싸움했던 아줌마 알고보니 중학시절 선생님



From, 이숙현 | 대구광역시

세일과 특가 상품이란 단어에 민감한 저는 신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상품전단지들을 보고서 무작정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카트를 밀고, 왼손에는 전단지를 들고 어떤 상품이 싸가, 어떤 상품이 잘 나왔나 매장 곳곳을 둘러봤죠. 그렇게 가격표를 꼼꼼히 챙기며 다니던 도중 500원짜리 시금치 한 단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손을 짝 벌어 집어 들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웬 아줌마가 제가 든 시금치를 같이 들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찾은 보물인데 싶어서 온 손가락에 힘을 주고 시금치를 잡고 있었습디다.

그 분도 어쩌나 기가 세면지 도무지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먼저 짤했거든요?'라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 끝에 눈접을 한 번 올렸다가 내렸더니, 그 분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 지 금세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더라고요.

결국 영광의 시금치는 제 카트 안에 실렸고,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할인 상품을 찾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할인 상품 판매대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 아줌마를 마주치는데 계속 짤했더군요. 분명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다가 나란히 놓여있는 두부를 동시에 집어 든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희한 낯날에 붉은 입술, 그리고 입술 아래에 있는 점까지.

중학교 다닐 적에 동경의 대상으로 여겼던 도덕 선생님이셨습니다.

20년 전 저희 학교로 처음 부임해 오셨었는데 정말 예뻐서 대학교 가면 꼭 저렇게 하고 다녀야지 하면서 항상 눈여겨봤었습니다. 머리핀, 가디건, 스카프 등 모든 것이 제 동경의 대상이었죠.

한 번은 수업받기가 싫어서 노래 불러달라고 졸랐었는데, 마침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불러주셨던 '애

심'은 그 날 이후로 줄곧 제 애창곡이 되었죠.

그렇게 좋아했던 선생님을 못 알아보고 기 싸움으로 물건을 사수했던 생각에 죄책감이 조금 들긴 합니다. 다음번에 보면 그 때는 저 기억하시냐고, 선생님께 노래 시켰던 그 기 작은 단발머리 여중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 남은 할인 상품이라도 무조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따라 도덕선생님께서 불러주셨던 전영복의 '애심'이 듣고 싶네요.

행복한 아침, 왕영은 이상우입니다
매일 오전 09:05~11:00
수도권 주파수 FM 106.1MHz
www.kbs.co.kr/radio/happyfm/hello